

건강을 지키는 현장

“땅을 사랑하는 우리 농민의 건강을 지키시다”

농민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개봉농업협동조합



더러는 지역적인 조건 때문에 또 더러는 일에 쫓겨 자신의 건강을 돌볼 틈이 그다지 많지 않은 농민들.

우리의 땅을 지키며, 우리의 식량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회원들에 대한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협의 활동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88년 부녀회원 건강검사를 시작으로 매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개봉농업협동조합은 농민과 농협 간의 남다른 협동심과 질서의식으로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찾아가 그들이 하고 있는 농협사업과 건강검사에 대해 들어봤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검사받는 조합원의 질서정연함이 인상적

무더위도 지쳐 버린듯 시나브로 내리는 보슬비는 잠시 잠깐이지만 긴 여름을 쫓개는 서막이었다.

복잡한 도심을 따라 기자가 찾아간 곳은 서울 개봉농업협동조합. 그동안 조합원들의 열망속에 올해 신속한 청사는 주변의 여느 건물보다 깨끗해 찾는 이들에게 산뜻함을 주었다.

계단을 따라 들어선 건강검사 현장에는 큼지막한 현수막을 중앙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 검사의 기회를 준 조합에 감사

방금 검사를 끝내고 나온 김정숙(52세)씨는 “우선 조합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넉넉한 살림이 아닐텐데도 조합원들을 위해 매년 정기 건강검사를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조합원으로서 긍지를 느낍니다.”라며 환하게 웃는다.

자신은 이번 난생 처음 건강검사를 받는다는 이해진씨(37세)는 “건강한 생활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하루종일 땀벌에서 땅을 일구는 농군에게는 건강은 그 무엇보다 필수적이죠. 사실 저도 잔병치레를 자주 하는 편인데 병원에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건강검사를 통해서 제 건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군요”라고 말한다.

• 24항목의 검사를 500여 조합원·직원에게 실시

“’88년 부녀회원 건강검사를 필두로 매년 300여명 정도를 검사해 오고 있는 개봉농협에서는 특히 올해에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건강검사까지 포함하여 당뇨병 검사등 24항목 검사를 500여명 실시하여 건강을 지키는 직장으로서 여타 단위농협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배경을 자세히 알기 위하여 이곳 조합장인 李起弘(54세)씨를 찾아가 보았다.

소박하다고 느껴지는 사무실에서 반갑게 기자를 맞아 주는 李 조합장은 생김 그대로 순박한 농군의 모습이었다.

개봉농협은 '88년 부녀회원 건강검사를 필두로 매년 일정 조합원에게 검사혜택을 주고 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농민건강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켜져야 할 사항

농민환원사업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러 찾아와서 부끄럽다고 첫인사를 건네는 이 조합장은 서울 개봉농업협동조합의 하는 일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사실 우리나라 농민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조건속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별도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우리들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구매사업, 지도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특히 조합원 건강검사에 주력해 오고 있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 어느 직종보다 육체적 노동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은 농민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조합원인 이곳에서 농민건강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라며 힘주어 말한다.

육체적 노동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은 농민 자신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李起弘** 조합장은 강조한다.

(사진 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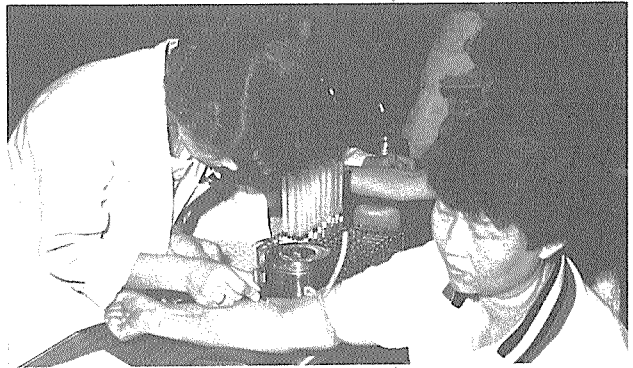
• 질병의 사전 예방에도 정기건강검사가 필수적

“물론 농기계배급, 자재 및 농약관리 등 산적한 사업이 많고 일부 조합원들은 건강한테 무슨 검사냐고 회의적인 말도 하지만 무관심속에서 발병하여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는 것보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시각에서 건강검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사실 저도 노부모님을 모시고 아직도 땅을 일구는 농민으로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농민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건강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었다.

제한된 예산
때문에 보다
많은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개봉농협은
이야기 한다.



함께 배석한 조합여성부장 李太順(38세)씨는 제한된 재원에 때문에 보다 많은 검사를 못하고 있지만 일단 검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조치까지 健協에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매년 건강검사를 실시해 오지만 올해와 같이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온적은 없었다고 한다.

“형식적인 검사에서 벗어나 조합원들 자신의 건강을 조합에서 지킨다는 인식을 많은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짜증스럽던 일도 감사하게 느껴졌고 그 어느때보다 조합원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느낌을 강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건협서울시지부 남서중 사업과장은 “협회에서 많은 검사를 해오고 있지만 개봉농협조합의 검사를 추진할 때는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하기도.

취재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돌아본 건강검사 현장은,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찾아 오는 조합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조합직원들이 분주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기자는 건강을 지키는 뜨거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김정현 글)